광주 남구청·순천대, 회장기 양궁 '금메달 잔치'

남구청 정다워 개인전 우승
여자부 순천대 금메달 4개
서보은 개인·단체전 3관왕
광주시청은 단체전 은메달

제40회 회장기 양궁대회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

회장기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한 순천대 양궁부.

광주 남구청과 순천대가 제40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금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광주 남구청 정다워는 지난 10일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40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 대회 남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남유빈(국군체육부대)을 세트 스코어 4-2로 꺾고 소속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준결승에서 정다원과 격돌한 팀 선배 이승윤은 동메달을 수확했다.

정다워는 이번 대회에서 배재현(청주시청·6-2), 이승신(현대제철·6-2), 김하준(공주시청·6-4), 조대진(대전중구청·7-3), 이승윤(광주 남구청·6-4) 등 스타급 선배들을 꺾었다.

광주체고-한체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남구청에 입단한 정다워는 이승윤에 이은 광주 남자양궁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오예진(광주여대)이 개인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예진은 결승에서 장미(경희대)를 상대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6으로 패했다.

오예진은 조경은(상지대), 정은비(창원대), 김예후(경희대)를 연파하고 준결승에 진출, 김서영(경희대)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여자일반부 광주시청은 단체전 은메달을 합작했다.

기보배·최민선·이가영·이보영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은 16강에서 하이트진로(5-3), 8강에서 여주시청(5-4), 준결승에서 홍성군청(5-1)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최종전에서 인천시청(1-5)에 발목을 잡혔다.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대학부 혼성전에서는 광주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오예진(광주여대)과 이원주(조선대)가 팀을 이룬 광주는 16강에서 울산(5-4), 8강에서 경북(5-1)을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복병 서울(2-6)에게 덜미가 잡혀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순천대학교 양궁부는 이 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서보은은 여자 리커브 대학부 개인전 50m 결승에서 344점을 획득해 이예진(창원대, 342점)과 김예후(경희대, 339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60m에서도 2위 김서영(경희대, 342점), 3위 이윤지(한국체대, 341점)을 제치고 346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차지, 2관왕을 달성했다.

여자단체전에서도 순천대 최민영, 탁해윤, 장인서, 서보은이 출전해 8강전에서 광주여대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경희대에 패해 창원대와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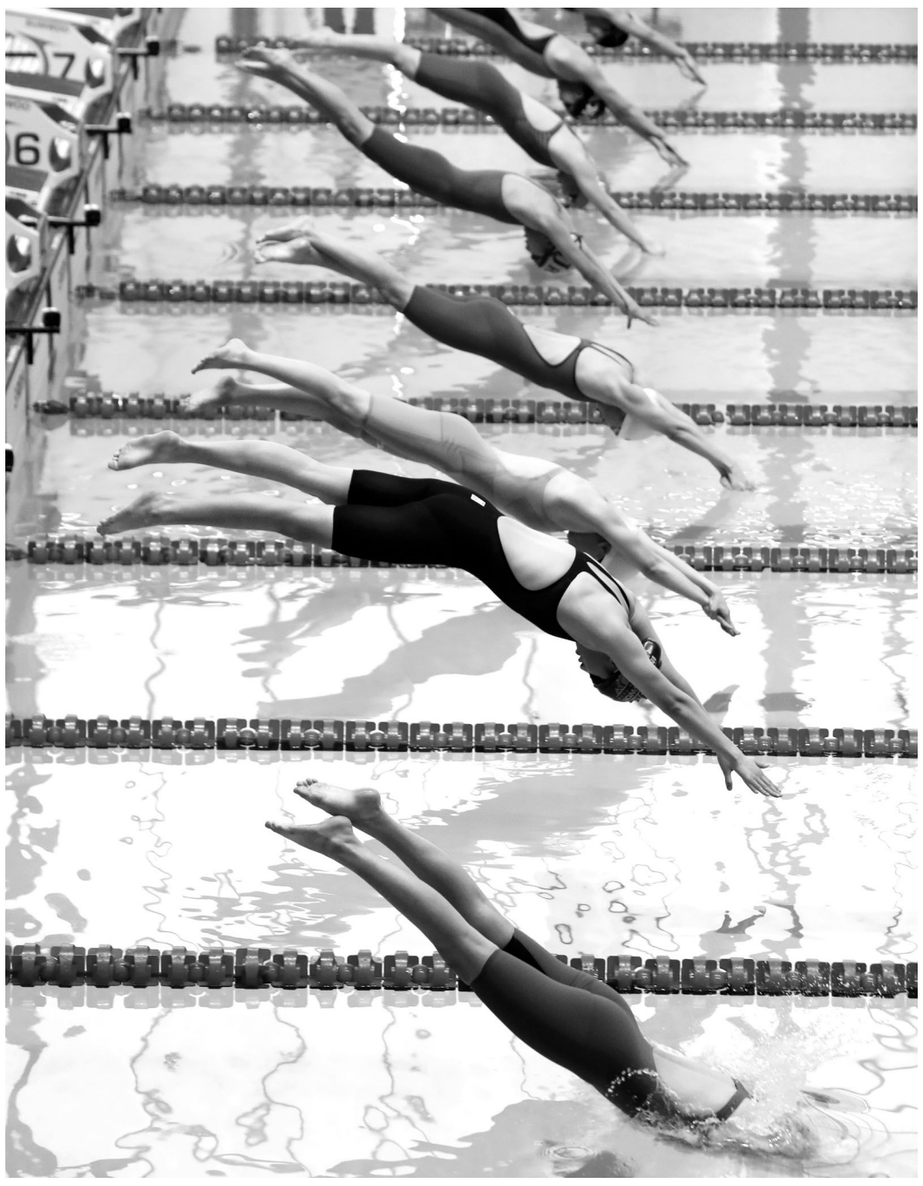
혼성단체전에서도 순천대 소보은과 김상현이 8강에서 대구 계명대, 4강에서 경기 경희대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서울 한체대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보은은 50m, 60m, 혼성까지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영 간판 김서영 '이름값'…혼영 200m 우승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11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 전국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중등부 자유형 800미터 결승에서 선수들이 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29·경북도청)이 광주에서 치른 2023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모의고사를 무난하게 마쳤다.

김서영은 10일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제2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2분11초69로 우승했다.

개인혼영 200m는 한 선수가 접영-배영-평영-자유형 순으로 50m씩 헤엄쳐 기록을 다투는 종목이다.

김서영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선두로 나섰고, 2분16초31로 2위를 한 이희은(대전시설관리공단)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자신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달성한 한국 기록 2분08초3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김서영은 2021년 국가대표 선발전(2분10초66)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올해 3월 대표 선발전에서 작성한 2분11초89보다는 0.20초 빨랐다.

이날 50m 구간 기록은 28초02(접영), 32초96(배영), 39초16(평영), 31초55(자유형)였다.

경기 뒤 김서영은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를 통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기록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며 "앞으로 있을 큰 국제 대회를 앞두고 치른 마지막 실전 대회인 만큼 남은 접영 100m와 계영 400m도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서영은 2017년 부다페스트, 2019년 광주,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개인혼영 200m 6위를 차지했다. 한국 수영 선수 중 단일 종목에서 3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한 선수는 김서영뿐이다.

올해 7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출전권도 확보한 김서영은 4회 연속 결승 진출을 노린다. /연합뉴스

구례군청 김시우 매화장사 첫 등극

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구례반달곰씨름스포츠클럽 설윤아 학생부 우승

매화장사에 등극한 김시우.

학생부 무궁화급에서 우승한 설윤아.

김시우(구례군청)가 생애 첫 매화장사에 등극했다.

김시우는 지난 10일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구례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 여자 1부 매화급(60kg 이하) 개인전 결승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시우는 김은별(안산시청)에게 먼저 한 판을 내줬지만 뒷심을 발휘했다.

이어 밭다리와 덧걸이를 잇따라 성공시켜 2-1로 김은별을 꺾고 생애 첫 매화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국화급(70kg 이하) 결승전에서는 박민지(영동군청)가 잡채기와 밀어치기를 사용해 김다혜(안산시청)를 2-1로 누르고 승리하며 생애 첫 국화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여자 2부 개인전 결승전에서 매화급(60kg 이하) 이현민(김포시씨름협회), 국화급(70kg 이하) 박지유(수원특례시씨름협회), 무궁화급(80kg 이하) 이현아(대구시씨름협회)가 각 체급에서 장사를 차지했다.

여자학생부 개인전 결승전에서는 매화급(60kg 이하) 오채원(용인대학교), 무궁화급(80kg 이하) 설윤아(구례반달곰씨름스포츠클럽)가 각 체급에서 우승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범죄도시3
3관	범죄도시3
4관	범죄도시3, 그 여름
5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6관	범죄도시3, 익스트림 페스티벌
9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7관 씨네커플	포켓 몬스터 DP: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8관 씨네커플	인어공주, 스즈메의 문단속, 부기맨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3-06-01(목) ~ 2023-06-30(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